

금호터미널 3년만에 ‘금호’ 품으로

금호아시아나, 2555억원에 인수…장부가보다 241억 높아

아시아나공항개발·아스항공 포함 총 3615억…대한통운 매각 본격화

금호터미널 등 대한통운의 자회사 3곳이 3년 만에 금호아시아나그룹 품으로 다시 안겼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통운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주식 1000만주(100%)를 2555억원에 인수했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 아울러 아시아나 공항개발 주식 320만660주(100%)를 677억원에, 아스항공 100만주(100%)를 383억원에 넘겨받았다.

이들 3곳의 인수 가격은 총 3615억 원으로, 지난해 말 장부가(3286억원)보다 329억원이 높다.

특히 광주 유-스퀘어를 비롯해 목포·대구·전주 등 전국 17개 지역에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금호터미널은 장부가 2814억원보다 241억원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인수는 아시아나와 대우건설이 추진 중인 대한통운 주식 공동매각 거래 종결을 선행 조건으로 진행되는 계약”이라며 “대한통운 공동매각 거래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9년 유동성 문제로 대한통운에 매각했던 금호터미널 등 3개사를 3년 만에 다시 되찾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통운의 매각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대한통운 매각 작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금호터미널 매각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대한통운 채권단은 이달 초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포스코와 롯데, CJ 그룹에 본입찰 안내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이달 말께 본입찰을 실시하고, 다음달 초 대한통운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롯데의 대한통운 인수 전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호터미널 분리 매각에 반기를 들고 철회를 고심했던 롯데는 최근 입장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대한통운 기업 자체를 보고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것”이라며 “금호터미널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인수를 포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롯데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관측이다. 롯데는 광주 최대 상권인 금호터미널 유-스퀘어를 인수함으로써

이미 입점해 있던 광주신세계를 경제하고, 수익성도 보장받겠다는 포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포스코와 CJ는 여전히 인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대한통운 인수를 통해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데 변함이 없고, 인수를 위해 철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적정 가격 안에서 무리없이 인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J는 대한통운 인수를 통해 업계 1

위는 물론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수 있어 일기안躲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시장에선 CJ가 일부 삼성생명 지

분 매각과 주식담보대출로 인수자금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CJ와 CJ제일제당은 삼성생명 지분을 각각 3.2%와 2.3% 보유하고 있어 약

1조1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ju.co.kr

금호석화 ‘계열분리’ 실패

공정위 “금호산업·금호타이어·아시아나항공은 금호그룹 계열사” 결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결별하기 위한 금호석화유화학의 시도가 무산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호석화 측이 신청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제외 신청에 대해 이를 계열사여야 여전히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지난 3월 공정위에 낸 신청서에서 이들 3개사를 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호석화는 자사의 계열분리 대신

금호산업 등 3개사의 계열분리를 신청한 것은 박삼구 회장 층이 금호석화 지분을 갖고 있어 요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호석화는 역으로 그룹에서 이들 3개사를 제외하는 ‘역 계열분리’ 신청을 낸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금호산업·금호타이어 등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첫 번째 요건인 지분율(전체 주식의 30% 이상)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주요 의사결정·경영상 영향력·임원 겸임 및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

체 등에서 자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봐야 한다”며 금호석화 층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삼구 회장 층은 형인 박삼구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본사작업을 추진해왔다. 금호석화는 계열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금호아시아나그룹 빌딩에서 나오는 등 완전히 갈라서려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으나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금호산업·금호타이어 등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첫 번째 요건인 지분율(전체 주식의 30% 이상)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주요 의사결정·경영상 영향력·임원 겸임 및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

/박정욱기자 jwpark@kwanju.co.kr

이완수 남광주농협 조합장 재선

남광주농협 이완수(59) 조합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17일 실시한 남광주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유효투표 수 1639표 가운데 901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 조합장은 앞으로 4년간 더 남광주농협을 이끌게 된다.



이 조합장은 당선 인사에서 “정도 경영·혁신 경영·투명 경영으로 믿음직하고 든든한 일등농협을 만들어 조합원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며 “전국 최고 성과를 낸 조합원 환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1976년 남광주농협에 입사해 27년간 농협에서 근무했다. 현재 NH보험 최고전략위원회 위원, 광주시 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 의장 등을 맡고 있다.

한편, 남광주농협은 본점·지점이 17곳에 있으며, 여수신 규모 1조7000억 원으로 광주·전남 최대 지역농협이다.

고객의 소리 우선 기업 금호고속 선정

한국능률컨설팅

금호고속(사장 김성선)은 최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11 고객의 소리를 우선하는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금호고속은 업계 최초로 고객의 소리(VOC)를 전담하는 ‘고객행복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들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하루 60분씩 현장에서 고객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현장 60’ 활동을 펼쳐 있다.

또 고객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고객의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이라며 “고객의 소리 청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ju.co.kr

광주지역 산업진흥협의회 정기총회

● 장소: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광주산업진흥 논의

광주시를 비롯해 광주상공회의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R&D특구지원본부 기술사업화센터, 광주일보사 등 산·학·연·인·관 24개 기관이 참여해 일자리 창출, 과학비즈니스벨트 대응 방안, 첨단기술기업 육성 등 광주지역 경제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 테크노파크 제공〉

레미콘업계 28일 전국 파업

광주시, 정부에 시멘트값 인하 건의

시멘트값 일방적 인상으로 촉발된 광주지역 레미콘업계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19일 광주지역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시멘트회사들의 일방적 시멘트값 30% 인상 환경에 맞서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광주지역 레미콘업계가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오는 28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레미콘업계가 파업에 동참하기로 합의 결정했다.

특히 시멘트회사들이 단기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레미콘업계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자 레미콘업계는 이에 맞서 파업을 단행했다.

또 레미콘업계는 시멘트회사들이 4월 1일 동시에 시멘트값 30%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담합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알

려졌다. 레미콘업계는 지난 4월 1일 상용용 흙 대기암 시멘트 회사들이 레미콘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레미콘업계의 주원재료인 시멘트값을 종전 t당 5만20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한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건설사업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날 정부 관련 부처에 시멘트가격 인하를 건의했다.

광주시는 “장기 파업으로 이어지면 영산강 사업과 나주 공동혁신도시 건설 등 주요사업 차질과 지역 건설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요 건설사업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날 정부 관련 부처에 시멘트가격 인하를 건의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조합설립 이후

다주택자 집 사도 입주권 준다

내년까지 한시적 인정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산 사람에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지구 내 다주택자의 주택인 일명 ‘물따지’(아파트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이 되는 주택)를 구입해 현금청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

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들도 분양권을 쥐 물따지 구입자들을 구제해주고,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이처럼 레미콘업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광주지역 중소 레미콘업체 23개사의 파업으로 레미콘 생산이 멈춰 각종 건설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광주지역 중소 레미콘업체 23개사의 파업으로 레미콘 생산이 멈춰 각종 건설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ju.co.kr〉

로또복권		(제446회)				
당첨 번호		2등보너스 수자				
1	11	12	14	26	35	6
1	6개 숫자 일치	4,051,247,625	3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9,405,459	41			
3	5개 숫자 일치	1,473,181	1,375			
4	4개 숫자 일치	50,000	68,198			
5	3개 숫자 일치	5,000	1,136,546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1개>

시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소재 지 및 면 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 고
				소 재 지 및 면 적 [